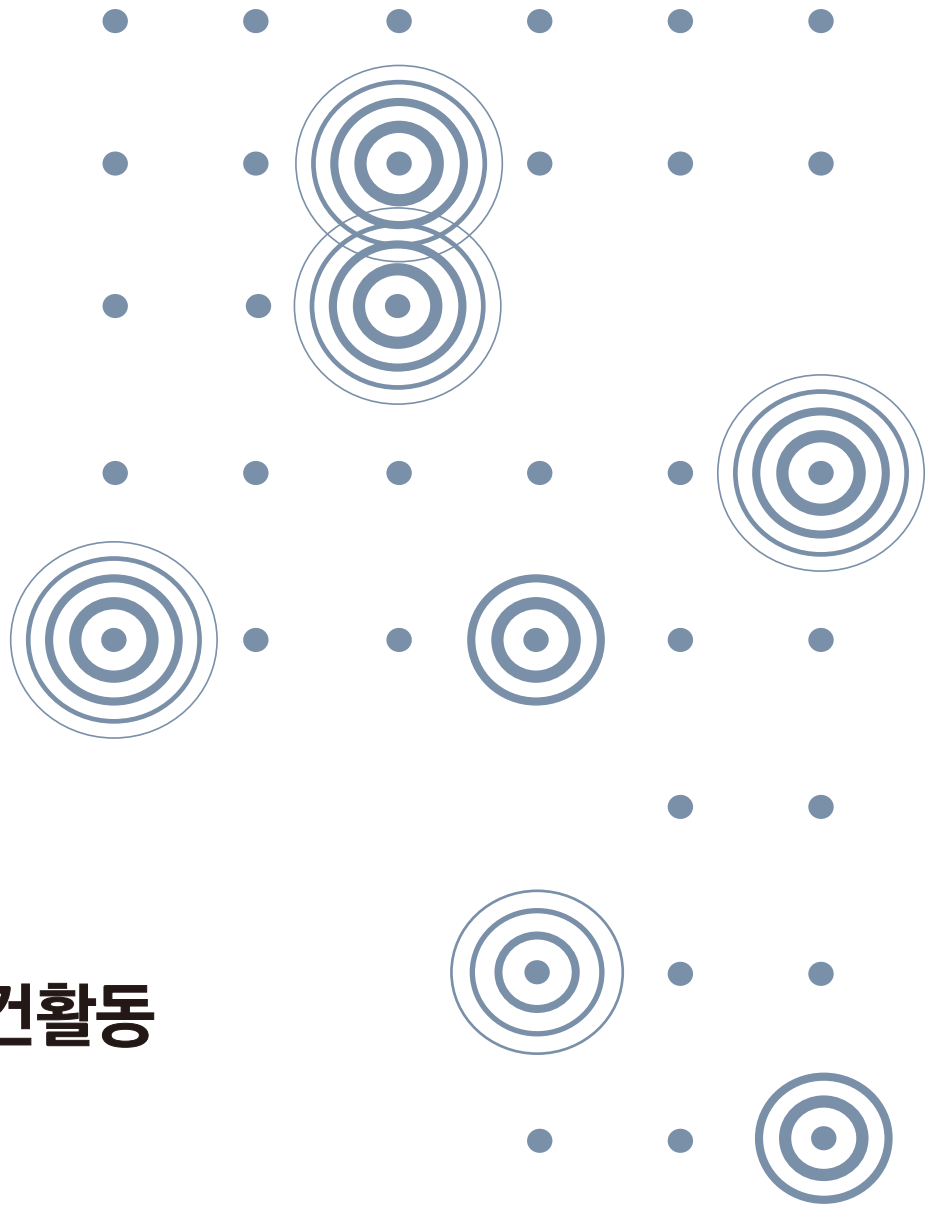


정책리포트

제293호 2020. 2. 17



# 서울시 공중보건활동 진단과 과제

손창우

연구위원

김정아

연구원

—————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는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 전반의 다양한 정책 이슈를 발굴하여 분석함으로써  
서울시의 비전 설정과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작성된 정책보고서입니다.

**제293호**

서울시 공중보건활동 진단과 과제

**발행인**      서왕진  
**편집인**      최    봉  
**발행처**      서울연구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ISSN**        2586-484X  
**발행일**      2020년 2월 17일

---

※ 이 정책리포트는 서울연구원의 연구보고서 「서울시 공중보건활동 진단과 과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이 정책리포트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서울시 공중보건활동 진단과 과제

손창우 연구위원  
02-2149-1029  
cwshon@si.re.kr

김정아 연구원  
02-2149-1244  
kja@si.re.kr

요약	3
I. 자치구별 건강문제·환경특성 고려한 공중보건사업의 필요성	4
II. 도시건강프로파일을 통한 서울시 건강문제 진단	5
III. 서울시 공중보건활동 진단	10
IV. 정책제언	14

## 요약

지금까지 서울시와 자치구의 보건사업은 서울시·자치구별 건강문제와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중앙정부 주도로 획일적으로 수행되어 왔다. 이에 서울시 및 자치구가 직면하고 있는 건강문제는 무엇이며, 건강문제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역의 공중보건 사업이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지를 진단하고, 과제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를 이용해 각 지역 상황에 맞는 건강결정요인 및 도시 사회환경 특성을 개선하고, 분석결과는 향후 서울시와 자치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

### 서울시 도시건강프로파일 분석…서울시와 자치구의 건강문제 우선순위 도출

서울시 사망원인의 비중과 추이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 정책 개입의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것은 암, 심장질환 및 폐렴으로 인한 사망이었다. 도시건강프로파일 분석 결과 최근 악화 경향을 보이고 자치구 간 격차가 큰 영역은 우울감·채소섭취 부족·천식·아토피 피부염이었다. 자치구별로 분석한 경우 자치구마다 처한 환경과 현재 건강문제의 우선순위가 다르게 도출되었는데, 환경성 질환은 광진구, 정신건강은 강동구 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시 도시건강지수 개발…환경적 요인들에 대한 개선 노력 필요

도시건강지수는 크게 건강결과와 건강결정요인으로 구성되며, 건강결과의 종합 순위는 서초구가 가장 높고, 금천구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결정요인의 종합 순위는 송파구가 가장 높고, 금천구가 가장 낮았으며, 사회경제적 수준에서 본 자치구 순위와 의료서비스 접근성 측면에서 본 자치구 순위가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 건강결과와 건강결정요인 지수 그룹의 자치구 비교로 서울시의 건강불평등 과제를 도출할 수 있었으며, 향후 환경적 요인을 개선하여 개인 수준의 사회경제적 환경의 취약성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 서울시 및 자치구별 건강문제·환경특성을 고려한 공중보건사업 수행

지금까지 서울시와 자치구의 건강문제를 파악하는 데 개별적이고 단기적인 지표를 활용했다면, 앞으로는 서울시 도시건강프로파일과 도시건강지수 등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지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서울시와 자치구별 상황을 고려한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건강결정요인 및 도시사회환경 특성을 개선해야 한다. 건강지표와 도시건강지수를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공표하여, 서울시민의 건강에 대한 책무성 및 건강정책의 우선순위를 높이고 도시계획, 기후환경, 교통 등 부문 간 협력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서울시-자치구 간 협조체계 또는 별도의 보고체계를 구축하여 서울시가 각 자치구의 보건사업 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며, 서울시와 자치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 서울시 도시건강지수를 활용하여 공중보건사업의 적정성 및 효과성을 파악해야 한다.

---

## I. 자치구별 건강문제·환경특성 고려한 공중보건사업의 필요성

### I 공중보건 개념 미정립으로 인한 효과적인 보건사업 수행 제한

현대사회 공중보건의 개념은 건강증진·만성질환 관리는 물론 사회적 영역으로까지 확대

- 미국·유럽 등에서 질병예방·건강증진·건강보호를 중심으로 필수공중보건활동 개념 정립
- 우리나라는 공중보건과 의료의 개념 구분이 모호
  - 국민들도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서비스보다 의료서비스 이용을 더 선호
  - 이로 인해 공중보건의 개념에 맞는 보건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는 데 어려움 존재

건강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공중보건 측면의 서울시와 자치구의 논의 필요

- 서울시의 전반적인 건강수준은 양호하나, 자치구별, 소득수준별 건강 격차는 여전히 문제
  - 서울시 기대수명은 2010년 81.8세에서 2017년 82.6세로 증가하였으나, 동일한 기간 동안 서울시 자치구 간 격차(최대-최소)는 3.1세에서 2.7세로 여전히 크게 존재
  - 서울시 소득수준별 기대수명 격차는 2010년 4.9세에서 2014년 6.0세로 오히려 더 커졌고, 전국적으로는 2018년 6.5년에서 2030년 6.7년으로 격차가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서울시와 자치구의 건강문제·환경특성에 대한 심층분석 필요
  - 지금까지 보건사업은 서울시와 자치구의 건강문제와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중앙정부 주도로 획일적으로 수행
  - 자치구 보건소가 수행하는 사업 수는 1960년 지역보건법이 제정된 이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서울시 시민건강국 역시 사업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 2016년 기준 서울시 시민건강국 사업은 총 271개로 서울시 전 부서 중 공무원 1인당 사업 수가 가장 많으며, 1개 사업당 예산 규모는 가장 적은 상황
- 공중보건의 관점에서 건강문제·보건사업의 우선순위와 보건활동의 적절성 판단 시도
  - 서울시와 자치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건강문제, 이에 대응하는 공중보건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한 진단 필요
  - 각 자치구의 건강문제와 환경에 기반하여 현재 수행 중인 보건활동의 적절성을 판단하고 보건계획 및 보건사업에 실제 지역의 특색 반영 필요

## II. 도시건강프로파일을 통한 서울시 건강문제 진단

### I 도시건강프로파일 개념과 목적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건강수준과 환경에 관한 프로파일로, 건강도시 실현을 위한 첫 단추

- 도시 거주자의 건강수준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한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
  - 도출된 결과로 도시의 건강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자극제 역할 가능
  - 부족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도시계획, 건강, 교통 등 부문 간 협력의 필요성 환기
  - 도시 건강수준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표 또는 자료의 필요성 제기
  - 건강수준 분석으로 도출된 건강취약 요소는 건강에 무관심했던 시민들과 지역 정치인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향후 건강도시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원동력으로 작용

### I 서울시 최대 건강문제는 암·심장질환 사망, 환경성 질환·우울·채소섭취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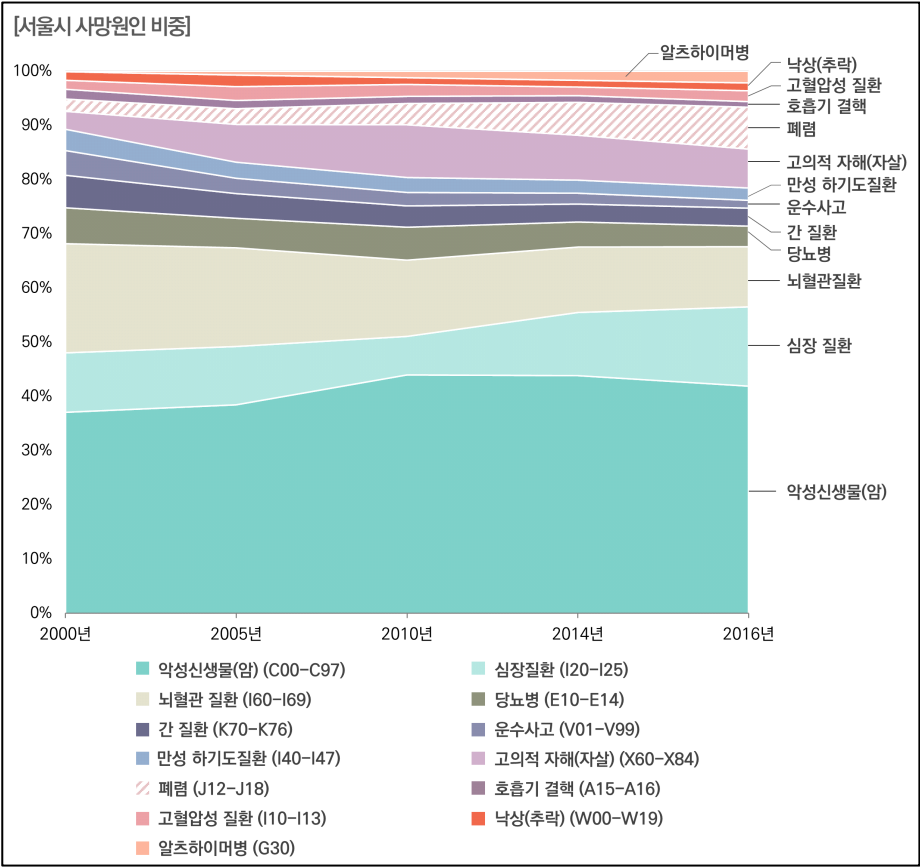
서울시 10대 사망원인 추이와 도시건강프로파일 수행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2000~2016년) 자료를 이용하여 서울시 10대 사망원인 추이 분석
  - 간암·폐암 등을 악성신생물(암)로, 허혈성 심장질환 및 기타 심장질환을 심장질환으로 통합하여 사망률 재계산
- 다양한 자료원을 활용하여 서울시 및 자치구 관련 건강지표 수집 후 도시건강프로파일 수행
  - 인구동향조사, 서울시 법정 감염병 발생현황 통계, 암 등록 통계, 지역사회건강조사 등 자료원 활용
  - 건강상태·생활환경·건강형평성의 3개 주제 아래 19개 세부주제(사망, 감염성질환 등)에 대해 84개 지표 검토
  - 도시건강프로파일로 서울시의 건강문제를 진단하기 위한 두 가지 기준 마련
    - 서울시민 전체의 최근 5년간 건강지표 추이를 분석하여 개선 및 악화 여부 판단
    - 서울시의 건강형평성을 확인하기 위해 건강지표의 최근 5년 평균값을 계산하여 변동계수<sup>1)</sup> 산출(모든 영역의 변동계수 평균값보다 크면 건강형평성을 달성하지 못한 영역으로 간주)

1) 변동계수: 표준편차를 표본평균으로 나눈 계수로, 변동계수가 클수록 격차가 큰 것을 의미. 본 연구에서는 전체 지표와 개별 지표의 변동계수를 산출한 후, 전체 지표의 변동계수보다 크면 변동성이 큰 영역을 건강격차가 큰 영역으로 간주하였고, 반대로 전체 지표의 변동계수보다 개별 지표의 변동계수가 작은 경우 건강격차가 작은 영역으로 간주

정책 개입의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사망원인은 암, 심장질환 및 폐렴

- 서울시 사망원인의 비중과 추이를 기준으로 서울시 건강문제의 우선순위를 분류
  -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주요 사망원인은 순위의 변동만 있을 뿐 매년 3대 사망원인에 포함
  - 2010년 이전에는 호흡기 결핵, 고혈압성 질환, 낙상 등이 10대 사망원인에 포함되었던 반면, 2010년 이후에는 심장질환, 당뇨병, 간질환 사망 비중 증가
    - 이러한 사망원인의 변화는 신체활동 부족, 서구화된 식습관, 지역사회 건강관리 미흡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
  -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최근 치매(알츠하이머병)가 사망원인에 새롭게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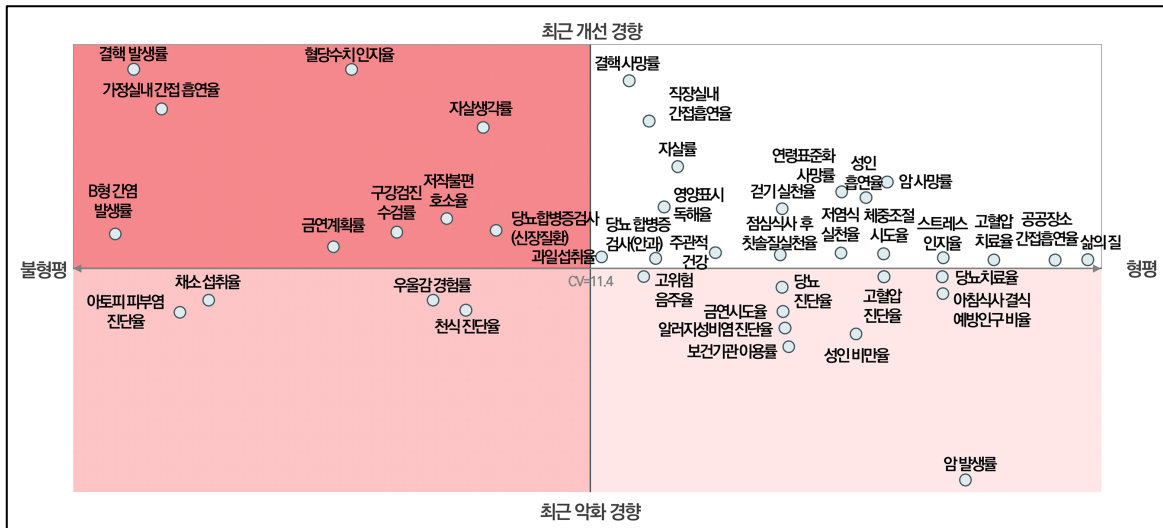
[그림 1] 서울시 10대 사망원인의 구성비 변화

## 서울시가 관심 가져야 할 자치구의 건강 문제는 우울감·채소섭취 부족·천식·아토피 피부염

- 서울시가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건강문제를 최근의 추세와 자치구 간 격차 측면에서 분석
  - 최근 5년간 건강지표의 경향성(개선 또는 악화), 건강형평성(개선 또는 악화)의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정책 개입의 우선순위 도출
    - 1순위: 건강지표 악화 및 건강형평성 악화, 2순위: 건강지표 악화 및 건강형평성 개선, 3순위: 건강지표 개선 및 건강형평성 악화
- 자살률이 다소 감소한 데 반해 우울은 서울시의 지속적인 건강문제로 확인
  - 초기에 스크리닝을 함으로써 증상을 미리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 기존 서울시 정신건강사업에서 '우울의 조기 발견 및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 고려
    - 보건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서울케어-건강돌봄 사업의 유기적 연계는 물론 일자리, 소득 격차 완화 등 거시적 차원의 접근에 이르는 다차원적이고 포괄적인 접근 필요
  - 자치구별로 1개소씩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 및 기능 확대 필요
- 전국에 비해 낮은 서울시 채소섭취율, 소득수준에 비례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
  - 2018년 서울시 채소섭취량은 하루 평균 279.6g으로 전국 평균 286.9g에 비해 낮은 편
    - 채소와 과일 섭취가 부족하면 허혈성 심장질환, 위암, 뇌졸중의 위험이 있는데, 이는 서울시 10대 사망원인 1~3위(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에 영향
  - 채소섭취 부족은 소득수준에 비례하는 경우가 많아 저소득층 또는 1인 가구가 더 취약
  - 서울 먹거리 마스터플랜과 더불어 향후 채소섭취 증가 및 건강한 식습관을 위해 식품 정보를 대중에게 제공하고, 저소득층과 1인 가구의 신선식품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이 과제
    - 현재 보건소가 저나트륨 식당을 '건강식당'으로 지정하는 사업에서 채소가 다량 들어있는 음식을 판매하는 식당도 '건강식당'으로 지정하는 방안 고려
    -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채소 및 과일 바우처를 제공하여 이들의 신선식품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 고려
- 미세먼지 이슈와 함께 서울시가 가장 시급하게 정책을 개발해야 하는 영역은 환경성질환으로 판단
  - 최근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오존 등 대기오염물질의 영향으로 환경성질환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
  - 현재 서울시 미세먼지 관리 정책은 법정계획인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 관리 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서울시 시행계획'과 서울시 자체 계획인 '미세먼지 10대 대책'을 중심으로 추진 중
  - 환경보건에 대한 전문인력과 재원을 마련하고, 특히 기후환경본부와 시민건강국을 중심으로 경제·교통·복지·도시설계 등 다부서 간 협력 거버넌스 체계 구축 필요
    - 도로 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물청소, 스프링클러 설치 등 고려
    - 지하철, 버스 확충으로 대중교통 이용 장려



- ‘서울시 맑은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제’와 같이 취약계층(영·유아, 아동, 노인)이 주로 이용하는 실내 시설의 공기 질 개선사업 지속 등 고려
- 시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노인, 아동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행동수칙 및 건강피해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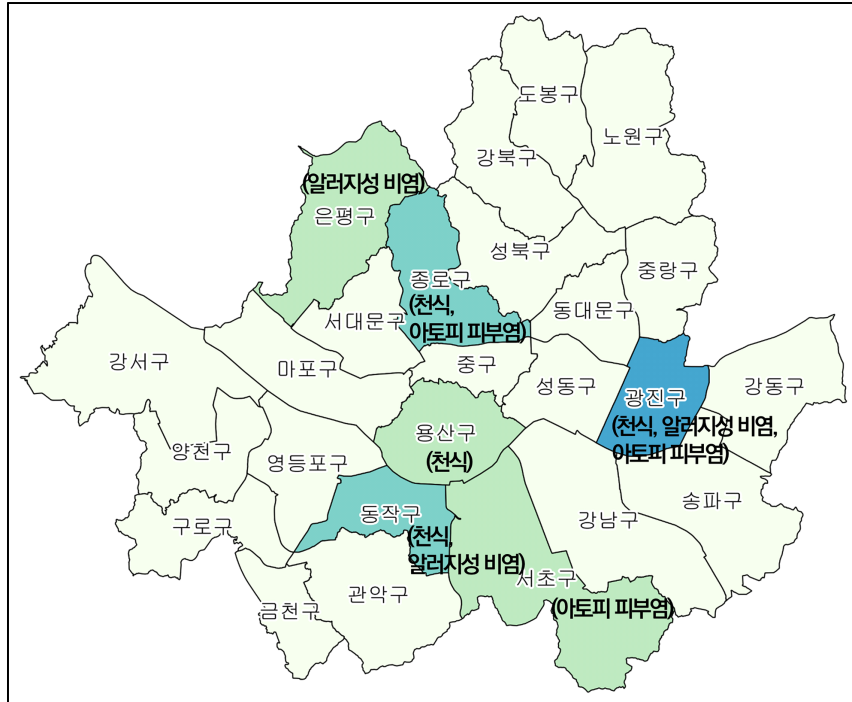


[그림 2] 서울시 건강프로파일 결과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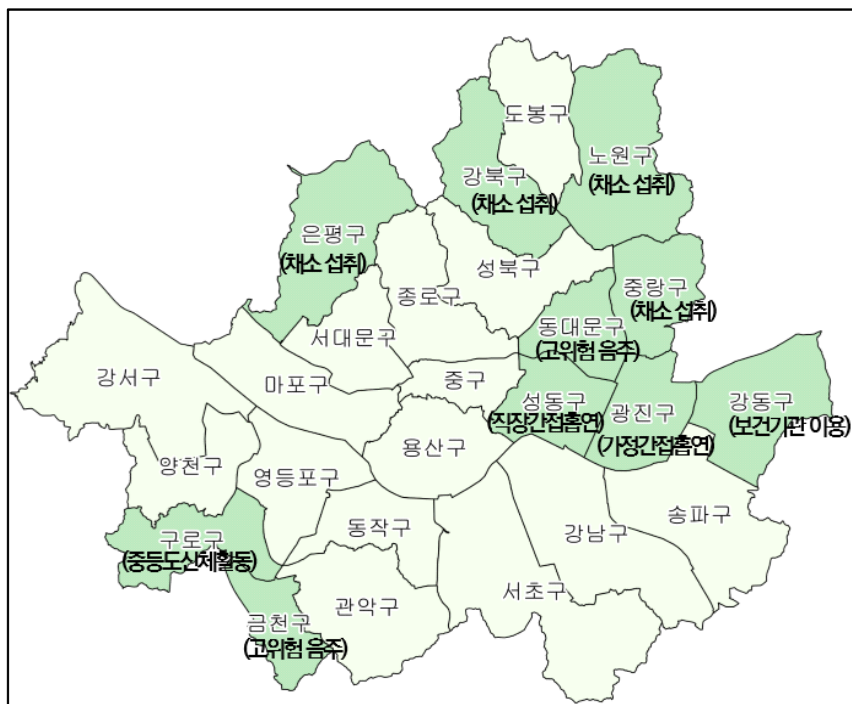
## Ⅰ 환경성 질환은 광진, 정신건강은 강동 등 자치구마다 건강취약요인 달라

- 자치구 건강취약요인은 해당 자치구별 서울시 전체 평균과의 격차와 최근 경향성을 기준으로 도출
- 그 결과, 자치구마다 처한 환경과 현재 건강문제의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
  - 환경성질환 중 천식과 아토피 피부염은 광진구, 동작구, 종로구에서 취약
  - 서초구는 천식과 알러지성 비염 진단율이 높지 않은 반면 아토피 피부염 진단율이 높았는데, 이는 높은 의료이용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
  - 만성질환 중 당뇨 진단율이 높은 곳은 서초구였던 반면 당뇨 치료율이 낮은 곳은 강서구, 종로구, 동대문구였으며, 강북구와 중랑구는 고혈압 진단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
  - 감염성질환 중 결핵은 용산구에서 발생 및 사망률이 모두 높았으며, 양천구는 결핵 사망률, 강북구는 결핵 발생률이 각각 취약
  - 건강행태 중 채소섭취는 노원구, 은평구, 중랑구, 강북구가 취약했으며, 고위험 음주는 금천구, 성북구, 동대문구가 취약

- 정신건강의 경우, 강동구가 취약한 자치구로 도출



[그림 3] 환경성질환 취약자치구



[그림 4] 건강행태 취약자치구

### Ⅲ. 서울시 공중보건활동 진단

#### Ⅰ 서울시 도시건강지수 도출

##### 건강결과와 건강결정요인 사이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도시건강지수를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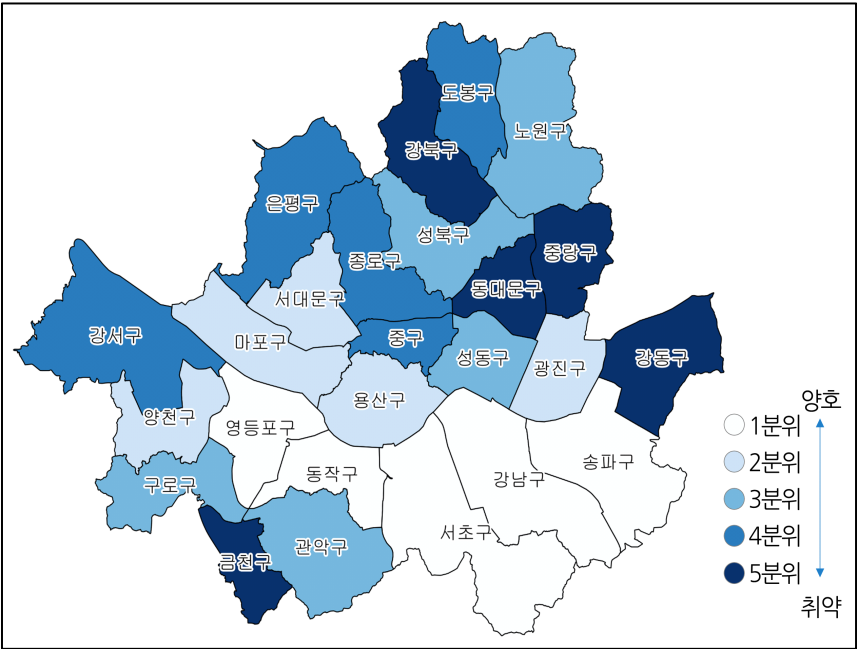
- 미국의 ‘카운티 건강지수모형(County Health Ranking)<sup>2)</sup>’ 모형을 활용하여 서울시 도시건강지수 모형을 구성한 후 지도화
  - 공중보건활동을 진단하는 방법 중 한 가지로 지역사회 건강수준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강조하며, 각 건강결정요인 사이의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것이 특징
  - 미국의 카운티 건강지수모형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지표의 산출 가능성, 결과의 실용성, 환경적 요인의 맥락 등을 고려하여 서울시 도시건강지수 모형 구성
  - 지수는 크게 건강결과와 건강결정요인으로 나누어 도출하였으며, 각 가중치는 100%로 동일하게 부여
    - 건강결과는 기대여명 및 사망(50%)과 삶의 질(50%) 지표의 가중치를 동일하게 구성하였고, 건강결정요인은 건강행태(40%), 의료서비스(20%), 사회경제적 요인(25%), 물리적 환경(15%)으로 구성하여 서울시 자치구의 전반적인 건강수준을 등급으로 확인

#### Ⅰ 건강결과·건강결정요인 우수 및 취약 자치구 간 현저한 차이 발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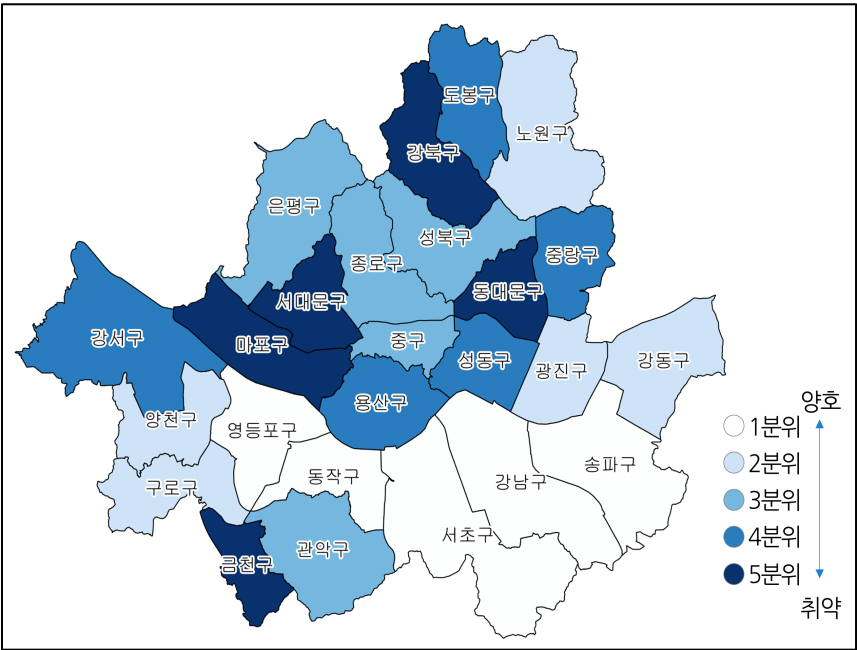
##### 건강결과의 종합 순위는 서초구가 가장 높고, 금천구가 가장 낮아

- 건강결과 중 ‘기대여명 및 사망’과 ‘삶의 질’ 모두에서 서초구, 강남구 등 강남권 지역이 높은 순위를 기록
  - ‘기대여명 및 사망’ 영역에서는 금천구, 강북구 등이 낮은 순위로 확인
  - ‘삶의 질’ 영역에서는 금천구, 중랑구 등이 낮은 자치구로 도출

2) 카운티 건강지수모형(County Health Ranking): 미국의 로버트 우드 존슨 재단(Robert Wood Johnson Foundation)과 위스콘신 대학 인구보건 연구소(University of Wisconsin Population Health Institute)가 협력하여 만든 지수로, 미국의 주별 건강지수를 평가하는 ‘America’s Health Rankings’를 바탕으로 각 주 내 카운티(County)별 건강지수를 평가. 포괄적인 관점에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인식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



[그림 5] 서울시 도시건강지수: 건강결과



[그림 6] 서울시 도시건강지수: 건강결정요인

### 건강결정요인의 종합 순위는 송파구가 가장 높고, 금천구가 가장 낮아

- 건강결정요인 중 가중치가 가장 높은 ‘건강행태’ 영역과 가중치가 두 번째로 높은 ‘사회경제적 요인’ 영역에서는 송파구, 서초구 등이 높은 순위를 기록

- ‘의료서비스’ 영역에서는 중구, 강남구 등의 순위가 높고, ‘물리적 환경’에서는 강남구, 강동구 등의 순위가 높은 것으로 확인
- 반면 ‘건강행태’ 영역에서 가장 취약한 구는 금천구, 동대문구, 강북구 등으로 현재 건강결과 지수 분석에서 나타난 순위와 대체로 유사한 경향
- 한편 ‘의료서비스’ 영역과 ‘물리적 환경’ 영역의 순위는 은평구, 관악구 등이 낮게 나타났고, ‘사회경제적 요인’ 영역의 순위는 동대문구, 중구 등이 낮은 것으로 확인
  - 사회경제적 수준에서 본 자치구 순위와 의료서비스 접근성 측면에서 본 자치구 순위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

## I 서울시 도시건강지수로 본 서울시의 문제

### 건강결과와 건강결정요인의 자치구 비교로 서울시의 건강불평등 과제 도출

- 서울시 자치구들의 건강결과와 건강결정요인의 결과가 유사한 경향을 확인
  - 현재 건강결과가 우수한 자치구들은 건강결정요인도 우수하여 미래에도 경향성이 유사할 것으로 예상
    - 건강결정요인의 누적된 결과가 미래의 건강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
  - 반면 현재 건강결과와 건강결정요인 모두 취약한 자치구들은 미래에도 건강결과가 취약할 것으로 예상
  - 현재 건강결과는 취약하지만 건강결정요인은 상대적으로 좋은 그룹에 속해있는 자치구는 앞으로 건강결정요인이 더 개선되면 건강결과 또한 개선될 것으로 기대

### 개인적 접근과 함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 개선 노력 병행 필요

- 대체적으로 자치구 건강결과, 건강행태가 우수한 경우 지역사회 환경도 우수한 경향을 확인
- 다만, 일부 자치구에서 건강행태 및 결과는 우수하나,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질을 포함해 건강에 영향을 주는 물리적 환경의 취약성을 확인
  -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자치구들은 건강결과와 건강행태, 물리적 환경이 모두 우수한 경향이 있었으며, 반대의 경우도 동일한 경향성을 확인

- 개인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물리적 환경을 보다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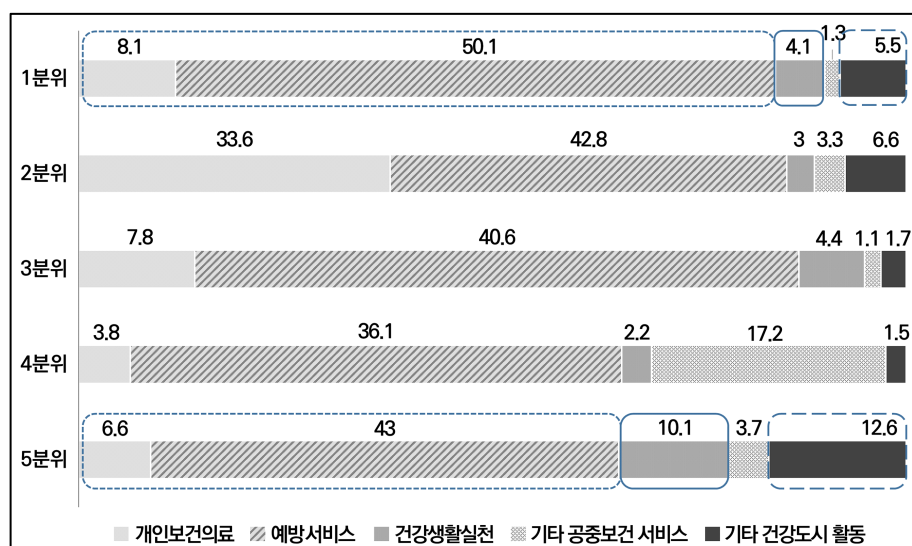
## I 도시건강지수 수준에 따라 자치구 보건소 지출 차이 발견

### 도시건강지수 우수 자치구는 예방서비스, 취약 자치구는 건강생활실천 비중 높아

- 도시건강지수가 가장 양호한 1분위 그룹은 개인보건의료(일반진료, 치과진료 등)와 예방서비스(암 및 기타 검사, 만성질환 교육 등)에 대한 보건소 지출 비중이 다른 그룹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
- 도시건강지수가 낮은 5분위 그룹은 건강생활실천(금연, 절주 등)과 기타 건강도시 활동(식품, 위생, 식품위생업소 단속 등)에 대한 보건소 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

### 자치구의 건강문제와 각 보건소의 공중보건사업 지출 간 비대칭 나타나

- 일부 자치구는 결핵 사망률, 우울감 경험률, 흡연 지수 등 건강지표가 좋지 않음에도 관련 보건소 사업 지출이 25개 자치구 중 가장 낮은 수준
  - 자치구가 처한 건강문제와 그에 따른 우선순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건소 사업은 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채 계획 및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



[그림 기] 서울시 도시건강지수 그룹별 보건소 지출 비교(사업별, 2016년)

## Ⅳ. 정책제언

### Ⅰ 서울시 및 자치구별 건강문제·환경특성 고려한 공중보건사업 수행

#### 서울시와 자치구 상황을 고려한 건강문제 개선

- 서울시와 자치구 특성에 맞는 공중보건사업 수행
  - 감염성·만성질환의 조기검진 강화와 함께 지역사회 내 감염성질환 관리체계를 구축
  - 환경보건에 대한 정보 등 중앙정부·서울시·민간기업 간 빅데이터 통합 구축
  - 보건소 내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서울시의 다양한 도시사회환경 지표를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 활용
  - 우울 개선사업 대상을 노인에서 서울시민 전체로 확대하고, 정신건강 취약 자치구를 중심으로 서울시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정신보건 영역을 포함하는 시범사업 고려

#### 건강정책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기 위해 건강결정요인 및 형평성 고려

- 단기 결과 비교보다는 중장기적 추이 및 격차를 분석해 서울시 및 각 자치구가 취약한 건강지표는 물론 서울시 도시건강지수를 지속적으로 산출 및 모니터링하고, 보건사업의 우선순위를 환기
- 자치구 건강취약요인 개선을 위한 자원의 우선배분으로 향후 지역 간 건강형평성 개선 달성

#### 자치구 상황에 맞는 공중보건사업 수행

- 서울시가 각 자치구의 보건사업을 모니터링하고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 서울시 도시건강지수 결과를 활용하여 건강결정요인 전반에 대한 자치구의 관심을 촉구하고, 향후 보건소 공중보건사업의 적정성 및 효과성 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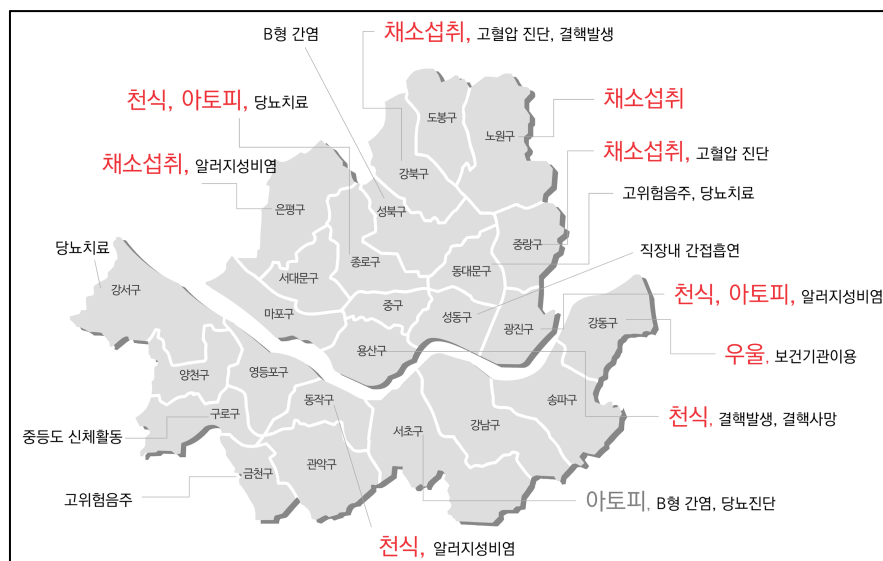
#### 주요 추진전략

주요 과제	추진전략
서울시와 자치구 상황을 고려한 건강문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염성·만성질환의 조기검진 등 예방사업 시행</li> <li>- 서울시와 자치구별 건강도시 설계를 통한 환경성질환 예방 지원 강화</li> <li>- 보건소 중심의 보건사업과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통한 건강습관 개선</li> <li>- 우울 개선사업의 대상 확대 및 정신보건관리체계 개선</li> </ul>
건강정책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기 위해 건강결정요인 및 형평성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장기적 관점에서 건강지표 추이 분석</li> <li>- 서울시 도시건강지수의 지속적인 업데이트로 책무성 및 우선순위 환기</li> </ul>
자치구 상황에 맞는 공중보건사업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가 각 자치구의 보건사업 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체계 구축</li> <li>-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 서울시 도시건강지수 활용</li> </ul>

## I 서울시와 자치구 상황을 고려한 건강문제 개선

### 감염성·만성질환의 조기검진 등 예방사업 시행

- 감염성질환의 조기검진 및 생활 행동·습관 개선을 통한 예방사업 시행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건강관리서비스에 결핵 예방교육 포함
    - 영·유아 및 아동 가정, 노인 등 면역체계가 약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결핵 위험군, 결핵에 대한 오해 등 결핵예방법 교육
  - 결핵 의심자 확인 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간호사가 보건소 및 전문의료기관으로 연계
  - 감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거점 의료기관(시립병원)-지역의사회-서울시-서울시 감염병관리지원단의 정보 연계체계 구축
- 일반 시민 대상 당뇨 관리 및 예방 교육 제공
  - 현재 서울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당뇨병 관리는 당뇨의 위험성 공유 및 당뇨 예방을 위한 일반 국민 대상 교육 부재 등 취약한 상황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서비스와 함께 지역사회 의료기관과 긴밀한 연계 구축 필요
    -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서울시 당뇨 관리 시범사업 도입
    - 대한당뇨병학회-지역사회 의사회(내과)-의료기관(합병증 검사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으로 한정)-보건소-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간 환자 연계체계 구축 및 당뇨환자 대상 시기적절한 정보와 의료서비스 제공



[그림 8] 서울시 자치구 건강문제 요약



## 서울시와 자치구별 건강도시 설계를 통한 환경성질환 예방 지원 강화

- 건강도시 설계를 위해 시민건강국, 도시계획국, 기후환경본부 등의 협력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시민건강국에서 도시위험요인 제거에 따른 건강 편익을 산출, 이를 기반으로 도시계획국 등에서는 건강도시 가이드라인을 제시
  - 서울시 시민건강국에서 수집하고 있는 건강지표 중 환경성질환 지표를 형평성 있게 고려하고, 생활에서 발생하는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중독 등의 지표를 추가 수집 및 모니터링
- 현재 WHO 건강도시에 가입되어 있는 25개 자치구와 건강도시운영위원회, 대한민국 건강도시 협의체 등과 협력하여 도시건강증진을 위한 환경개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근거 마련
  - 이와 함께, 자치구 내부적으로는 건강도시 설계가 가능하도록 기획예산국, 도시계획국, 환경국, 보건소 등이 협력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 수 있는 매트릭스 조직을 만들어 사업 실행이 가능한 구조를 확보

## 보건소 중심의 보건사업과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통한 건강습관 개선

- 보건소 내 건강증진 프로그램 확충
  - 계층별 금연 및 절주 지원 서비스 마련
  -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영양 부문 포함
- 건강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 도출한 서울시의 신체활동·식품·도시환경 지표 결과를 서울시 및 각 자치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 활용

## 우울 개선사업의 대상 확대 및 정신보건관리체계 개선

- 우울 개선사업의 대상을 노인에서 전체 서울시민으로 확대
  - 서울시의 최근 자살률은 다소 개선되는 경향을 보이나 우울은 여전히 증가하는 추세
  - 우울의 위험군인 저소득층, 노인과 더불어 일반 시민으로 사업 대상 확대 필요
- 지역사회 내 정신보건관리체계 개선
  - 정신건강이 특히 취약한 자치구를 중심으로 서울시 차원에서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정신보건영역을 포함하는 시범사업 고려
  -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복지센터-보건소-찾아가는 동주민센터-지역 의료기관 간 협력 거버넌스 구축

## I 건강정책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기 위해 건강결정요인 및 형평성 고려

### 중장기적 관점에서 건강지표 추이 분석

- 최소 5년 이상의 추이 분석에 기반한 건강지표 모니터링 필요
  - 건강결정요인과 건강결과 사이에 시간차(time-lag) 존재
    - 현재의 건강결과는 건강결정요인의 누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건강결정요인은 비교적 단기간에 변화가 가능하나, 건강결과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변화 가능

구분	세부 구분	지표	서울		프로파일 영역	최근 5년 연평균변화율	C.V
			현황	전년 대비증감			
건강 수준	음주	고위험 음주율	17.2%	▼	고위험 음주율	0.2	10.45
	비만	비만율	23.1%	▼	성인비만율	2.5	6.56

[그림 9] 서울시 건강지표 전년 대비 증감률과 최근 5년 연평균 변화율 비교

- 제8기 서울시 및 각 자치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 전년도와의 비교가 아닌 최소 5년 이상의 변화추이를 반영한 모니터링 및 목표 제시 필요

### 서울시 도시건강지수의 지속적인 업데이트로 책무성 및 우선순위 환기

- 서울시 도시건강지수를 활용해 다양한 건강결정요인 간 관계, 건강결정요인에 따른 건강결과까지 종합적인 해석 필요
  - 수명, 건강수명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수준, 의료서비스, 물리적 환경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
  - 도시건강지수 결과 공표는 서울시민의 건강에 대한 책무성 및 건강정책의 우선순위를 높일 수 있으며, 건강수준을 높이는 데 필요한 도시계획, 기후환경, 교통 등 부문 간 협력의 필요성 환기 가능

## I 자치구 상황에 맞는 공중보건사업 수행

### 서울시가 각 자치구의 보건사업 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체계 구축

- 서울시-자치구 간 협조체계 또는 별도의 보고체계 구축
  - 보건소 지출내역조사 자료의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협조체계 구축
  - 또는 보건소 인력구성과 함께 지역보건법에서 규정한 보건사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별도의 보고체계 구축 필요
    - 이를 통해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공중보건활동에 대한 모니터링과 질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며, 향후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 서울시 도시건강지수 활용

- 서울시 도시건강지수를 활용해 현재 보건소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중보건사업의 적정성 및 효과성 파악
  - 각 자치구에서는 보건사업 평가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의 적정성 연구를 수행하거나, 필요에 따라 서울연구원에서 운영 중인 구정연구지원단을 활용하여 각 자치구의 특성에 맞는 보건사업을 제안하는 것 등이 가능
  - 서울시 도시건강지수를 자치구 지역보건의료계획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및 경제정책 마련의 근거로 활용
  - 도시건강지수를 바탕으로 도출된 건강 취약자치구 특유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보건공모사업 시 주제에 맞게 건강 취약자치구에 자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것도 고려 가능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http://www.si.re.kr)